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7, 느헤미야 3-4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회기 느헤미야 3-4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유배로의 유배가 세 번 있었던 것처럼 유배에서 귀환도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약 50,000명의 유대인이 돌아왔습니다. 약
2,000명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인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숫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피해를 보고 평가한 결과, 이제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반대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산발랏과 도비야로부터 시작하여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장에서 정말 훌륭한 팀워크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팀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3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3장은 팀워크를 통해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이것은
20%의 사람들이 일의 80%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모두가 함께 모여 재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1 그러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별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백인의 망대까지, 하나넬의 망대까지 성별했습니다. **2**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이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하고 계속하십시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었는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모범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엘리아십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자에게 있어야 할 특성인 겸손을 나타냅니다. 로마 이후 처음으로 서유럽을 통일한 유일한 왕이자 프랑크족의 왕 샤를마뉴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샤를마뉴의 장례식이 성당에 왔을 때, 주교가 출입을 금지하고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오나요?" 주교가 소리쳤다. "샤를마뉴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주이자 왕이십니다." 이에 주교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누가 오나요?" 전령들은 약간 당황한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 찰스는 착하고 정직한 이 땅의 사람입니다." 감독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누가 오나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채 전령들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구하는 비천한 죄인인 찰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감독님이 대답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겸손은 위대하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리더십에 있어야 합니다. 엘리아십이 자신을 낮추고 그 일을 하였으므로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그의 본을 따랐느니라.

성경은 그들이 함께 성벽 북동쪽에 있는 양문을 재건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이곳이 원래 다윗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그것을 북쪽으로 더 확장했고, 그가 성전을 지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은 성장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면 성 주위에 이 모든 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첫 번째 문은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사원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학자들은 도살할 양들이 이곳을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 일부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일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설물 문(Dung Gate)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Fish Gate는 다시 말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마도 수산 시장과 가까웠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물고기를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게이트 중 일부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일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문(Sheep Gate)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 제도로 돌아가기 위해 재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양문은 출발점 역할을 하며 예루살렘의 정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양문은 현관문, 똥문은 뒷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문은 역시 정문이었고, 중심 기준점으로서 성전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Fish Gate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3-5절에 보면 하스나아 자손들이 물고기 문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아마도 사람들이 가서 생선을 사는 수산시장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교육받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예샤나의 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Yeshanna는 Yeshanna 마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의 서쪽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8-10절에서 우리는 여기서 금 세공인을 언급했습니다.

10절, 그 다음은 하룸바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여기서도 노동자인 사람들은 위치만으로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업으로 식별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11-14절은 뚝 문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벽에서 일하지만 이는 팀의 노력입니다.

15-21절, 그들은 샘문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수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상당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곳, 실로암 못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실로암 못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터널을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샘으로 내려가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28-32절은 말 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문은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Horse Gate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음표인데 아마도 절과 궁궐 사이쯤이었을 것이다.

말의 문은 실제로 성벽의 동쪽에 있는 성문인 것 같습니다. 사원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미지에서 그것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3장이 강조하는 것은 다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다양한 지역의 작업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 기술,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모범을 따랐고 다른 사람들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건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신약성경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라는 말을 결코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일치로 이루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일치를 이루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장은 팀워크의 좋은 예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위한 다양성 속의 단결. 그러나 이번에도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반대자들, 대적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와 준비를 통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 산발랏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노하여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2 그리고 그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약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복원할 것인가? 그들이 희생할 것인가? 하루 안에 끝날까요?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다시 살리고 불에 태운 돌을 다시 살리겠습니까?” **3**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과연 그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면 그들의 돌담이

무너지리라 하더라

4장은 대조의 장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실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신실한 계획은 신실한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취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위협하는 반면, 충실한 자들은 경건한 지도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웃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복원될까요? 끝날까요? 이 모든 질문에는 '아니요'라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외로운 여우 한 마리가 벽에 올라가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조롱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예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대답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답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6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전쟁을 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멸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저주의 기도의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항상 묻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저주의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 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겸손하지만 올바른 견해로는 오늘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저주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7-8절.

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진행되고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8**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싸워 그곳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함께 모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는 커져가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전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커질 것입니다.

먼저 조롱한 다음 위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매우 화가 나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을 계획하는 것처럼 반대자들은 파괴를 계획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신실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신실하지 못한 음모를 계획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동안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그들의 멸망을 원하는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9-11절 9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밤낮으로 그들을 막도록 했습니다.

10 유다에는 ㄷ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이 쇠약해진다. 잔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11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기까지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현실을 봅니다.

반대에 직면하면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힘으로는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그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거 들었어? 그것은 질문, 가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군은 계속해서 폭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것이 죽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격려의 말을 한 후 일을 시작합니다.

12-14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느헤미야가 전투를 벌이는 방식, 지금 적과 싸우는 방식은 추종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준비를 대신할 수 없고, 준비가 경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칼, 창, 활을 가진 무장 경비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위험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봐, 너희들은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 여호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 공동체를 격려했던 동일한 후렴이다. 고난과 반대의 시기에 우리도 기억해야 할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 때문에 하고, 그분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들과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15-18절.

그걸 잡았나요? 원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원수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섰더라.

짐을 지는 사람들은 각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쥐는 방식으로 짐을 짊어졌습니다. **18**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하는 동안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

전략은 분명하다. 일하고 방어하십시오. 한 손에는 벽돌이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시작하는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사실이 그들이 싸워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평화주의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현명한 작업과 방어 전략.

느헤미야가 취한 또 다른 실질적인 긴급 조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적군이 야간 공격을 가할 경우에 그들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경건한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일방적인 일만이 아니라 방어하고 보호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특히 매우 불확실한 우리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회기 느헤미야 3-4장입니다.